

# 국립국어원 소개

## □ 설립 목적

- ▶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어문 정책을 주관하는 기관
-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함.
- 어문 규정을 주관하고, 국어사전 등을 편찬하여 국민들이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국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어 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
- 한국어를 널리 세계에 알려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을 높임.

## □ 하는 일

가. '국어기본법'에 따른 주요 활동과 사업

### 1. '국어책임관' 지정 및 운영

정부 각 부처와 공공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함.

<국어책임관의 업무 범위>

- 공공기관 내 국어사용 개선을 위한 업무
- 쉽고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 행정 용어 및 전문 용어를 우리말답게 다듬어 사용하도록 장려
- 지역 주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업무
  - 지역 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일
  - 지역의 언어 경관 개선
  - 지역의 언어문화유산 보전

<국어책임관을 지정한 부처·기관>

- 18개 중앙행정기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건설교통부)
- 4개 처(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 16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제주도)
- 그 밖(청와대,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2. 전국적인 국어 생활 상담망 구축을 위한 ‘국어상담소’ 지정·운영  
 어문 규범 등 국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의 제공,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법 지도, 공공 기관의 공문서·자료 감수, 시민 대상의 글쓰기·말하기 지도, 어휘력·문장력 향상 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진행함. 현재 전국에 14개의 국어상담소

를 지정하여 운영 중.

### 3.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돕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운영

#### - 교육과정

-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 \* 일정과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 참조.
- 향후, 원내에 맞춤형 국어전문교육과정 수시 개설 예정

#### ※ 찾아가는 문화학교 강좌 신청 안내

원내 국어문화학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전국 기관·단체에서 신청하면 요청 장소로 강사와 교재를 보내 강의 함(수강생 30명 이상, 날짜와 시간, 과목 등은 사전 협의).

- 문의처: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전화: (02) 2669-9752, 9729, 9736

전송: (02) 2669-9747, 9787

### 나. 대국민 편의 제공

#### ○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어정보 검색

- 국립국어원 누리집(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자료 검색 가능.

○ 국어 생활 편의 제공

- 가나다 전화(02-771-9909) 월~금 매일(09:00~18:00) 전화 상담원이 한국어 어문 규정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운영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묻고 답하기’에서도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려는 목적으로 발간함. 국어원 누리집에서 지난 달 치 검색 가능.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매달 발간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함. 누리집에서 지난 달 치 검색 가능.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mailto:news@korean.go.kr)로.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운영

- 1991년 국립국어원 개원 이래 일본어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구 외래어 등 순화 사업 추진.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www.malteo.net](http://www.malteo.net) 참조

# 1.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 가려고(○) / 갈려고(×)

시험이 끝나고 한돌이는 친구와 함께 학교를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친구: 한돌아! 너 이제 뭘 할 거니?

한돌: 응. 집에 가려고 해.

친구: 그냥, 집에 갈려고?

한돌: ‘**갈려고**’가 뭐야, ‘**가려고**’지.

“집에 갈려고?”의 ‘갈려고’는 ‘가려고’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 보다’와 같이 ‘-다’ 앞의 말이 받침이 없으면 ‘가려고, 보려고’처럼 되고, ‘먹다, 잡다’와 같이 ‘-다’ 앞의 말이 받침이 있는 말은 ‘먹으려고, 잡으려고’처럼 됩니다. 그런데 ‘가려고, 보려고’나 ‘먹으려고, 잡으려고’를 자주 ‘갈려고, 볼려고’와 ‘먹을려고, 잡을려고’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 보다, 먹다, 잡다’에 ‘-(으)러려고’가 붙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으)러려고’는 ‘-(으)려고’를 잘못 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려고, 볼려고, 먹을려고, 잡을려고’는 ‘가려고, 보려고, 먹으려고, 잡으려고’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 가--+려고 → 가려고(○) / 갈려고(×)

보다: 보--+려고 → 보려고(○) / 불려고(×)

먹다: 먹--+으려고 → 먹으려고(○) / 먹으려고(×)

잡다: 잡--+으려고 → 잡으려고(○) / 잡으려고(×)

• 거예요(○) / 거예요(×)

한돌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한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돌이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파리채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바퀴벌레를 파리채로 잡은 한돌이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한돌: 엄마! 엄마! 제 방으로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제가 잡았어요.

엄마: 그래? 집에 바퀴벌레가 생겼나 보구나.

한돌: 제가 잡았으니, 이젠 없을 거예요.

엄마: 그랬으면 좋지만, 바퀴벌레가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젠 없을 거예요.”의 ‘거예요’는 ‘**거예요**’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책상이어요, 연필이에요’처럼 ‘-이어요, -이에요’가 붙고, 받침이 없는 말 다음에는 ‘-이어요, -이에요’가 준 ‘-여요, -예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처럼 쓰고, ‘국수’는 ‘국수여요, 국수예요’처럼 씁

니다. ‘거예요’의 ‘거’는 받침이 없는 말이므로 ‘거여요, 거예요’로 써야 맞습니다.

받침 있는 말: 책상이어요, 책상이에요

받침 없는 말: 거이어요, 거이에요 -> 거여요, 거예요(○) / 거에요(×)

국수이어요, 국수이에요 -> 국수여요, 국수예요(○) / 국수에요(×)

• 금세(○) / 금새(×)

오랜만에 엄마와 한돌이, 한글이가 백화점에 갔습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장난감을 파는 곳에서 정신없이 구경을 했습니다.

엄마: 지하 슈퍼에 가서 채소를 사야 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래?

한돌: 그러세요. 저희는 엄마가 오실 때까지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엄마: 금새 갔다 올게. 동생하고 잘 놀고 있어.

‘금새 갔다 올게’의 ‘금새’는 ‘금세’로 적어야 맞습니다.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에’의 표기가 살아 있는 ‘금세’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 깨끗이(○) / 깨끗히(×) / 깨끗시(×)

오늘은 우리 집 대청소 날입니다. 아빠는 청소기를 밀고, 엄마는 걸레질을 하십니다. 한돌이와 한글이는 각각 자기 방 정돈을 해야 합니다.

아빠: 한돌이, 한글이는 각자 자기 방을 **깨끗히** 정돈해라.

한돌·한글: 네. **깨끗이** 정돈할게요.

엄마: 청소 끝나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 줄게.

“깨끗이 정돈해라.”에서 ‘깨끗이’를 ‘깨끗히’나 ‘깨끗시’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깨끗이’는 ‘깨끗하다’의 ‘깨끗-’에 ‘-이’가 붙은 말입니다. ‘깨끗하다(깨끗+하다) / 깨끗이(깨끗+이)’처럼 적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깨끗하다 / 깨끗이(깨끗시×), 뚜렷하다 / 뚜렷이(뚜렷시×)  
 버젓하다 / 버젓이(버젓시×), 어렴풋하다 / 어렴풋이(어렴푸시×)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5항, 제51항 참고.

- 꼬이다(○) / 꼬시다(×)

한돌이는 방과 후에 집에 바로 가서 동생 한글이와 놀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짝꿍 성현이가 자꾸 자기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성현: 한돌아! 어제 우리 아빠가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 CD  
를 사 오셨어.

한돌: 와! 좋겠다. 재밌니?

성현: 굉장히 재밌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할래.

한돌: 자꾸 꼬시지 마. 오늘은 동생하고 놀아 주기로 했어.

성현: 내가 언제 꼬였니?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에 그  
런 거지.

“꼬시지 마”의 ‘꼬시지’는 ‘꼬이지’로 써야 맞습니다. 흔히 그럴  
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게 한다는 뜻으로 ‘꼬시다, 꼬심’ 등의 말은 쓰는데, ‘꼬시  
다’는 ‘꼬이다’를 잘못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꼬시지’는 ‘꼬  
이지’로 써야 하고, ‘꼬심’은 ‘꼬임’으로, ‘꼬셨니’는 ‘꼬였니’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꼬이다(○) / 꼬시다(×)

꼬임(○) / 꼬심(×)

꼬였다(○) / 꼬셨다(×)

- -이였다(○) / -이였다(×)

한돌이네 마당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었습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 키가 작은 민들레, 닭뿔 같은 맨드라미, 손톱에 물을 들이는 붉은 봉숭화…….

한글: 엄마! 꽃밭에 꽃들이 피니까 마당이 아주 예뻐요.

엄마: 그래. 아주 예쁘구나. 한글이는 어떤 꽃이 제일 좋으  
니?

한글: 예전엔 장미꽃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민들레가 좋아  
요.

‘장미꽃이었는데’는 ‘장미꽃이었는데’로 써야 맞습니다. ‘떡다’의 ‘떡’에 ‘-였-’이 붙어 ‘떡었다’가 되는 것처럼 ‘장미꽃이다’의 ‘장미꽃이-’에 ‘-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었다’의 ‘이-’가 뒤에 ‘-였-’에 영향을 주어 [-열따]로 소리 나기 때문에 ‘-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녹이어, 업히어, 굴리어, 잡히었다’를 ‘녹이여, 업히여, 굴리여, 잡히였다’로 잘못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녹이다, 업히다, 굴리다, 잡히다’에 ‘-어, -였-’이 붙은 말이므로, ‘녹이어, 업히어, 굴리어, 잡히었다’로 적어야 맞습니다.

예) 녹이--어-->녹이어(○) / 녹이여(x),  
업히--어-->업히어(○) / 업히여(x)  
굴리--어-->굴리어(○) / 굴리여(x),  
잡히--어-->잡히어(○) / 잡히여(x)

• 나는 슈퍼맨(○) / 날으는 슈퍼맨(×)

‘하늘을 나는 슈퍼맨’이 맞습니다. 만화에서 ‘하늘을 날으는 슈퍼맨’으로 많이 써서 ‘날으는 슈퍼맨’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슈퍼맨’의 ‘나는’은 ‘날다’에 ‘-는’이 붙으면서 ‘르’이 없어집니다. ‘집에 사는 오리, 콩을 가는 맷돌’의 ‘사는, 가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             |             |
|-------------|-------------|-------------|
| 예) 날다       | 살다          | 갈다          |
| 날+-는 --> 나는 | 살+-는 --> 사는 | 갈+-는 --> 가는 |
| 날+-고 --> 날고 | 살+-고 --> 살고 | 갈+-고 --> 갈고 |
| 날+-며 --> 날며 | 살+-며 --> 살며 | 갈+-며 --> 갈며 |
| 날+-아 --> 날아 | 살+-아 --> 살아 | 갈+-아 --> 갈아 |

• 너머(○) / 넘어(×)

방학이 되면 한돌이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갑니다. 시골에 가면 종일 개울에 가서 놀거나 산마루에 올라 동네 아이들과 칼싸움을 합니다.

한돌: 애들아! 저 산 넘어에는 뭐가 있니?

아이들: 글썄?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넘어가 보지 않아 몰라.

“저 산 넘어에는”의 ‘넘어’는 ‘너머’로 써야 맞습니다. ‘너머’와 ‘넘어’는 소리가 같아 어떤 때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혼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머’와 ‘넘어’는 구별해 써야 할 말입니다. ‘산 너머’는 산 저쪽의 공간을 뜻하는 말이고, ‘산 넘어’는 산을 넘는 동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산 너머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와 같이 쓸 때는 산 저쪽의 공간을 뜻하므로 ‘너머’를 써야 맞고, “산을 넘어가 보지 않아 몰라.”와 같이 직접 넘는 동작을 뜻할 때는 ‘넘어’를 써야 맞습니다.

• 네가(○) / 너가(×) / 니가(×)

한돌이는 짝꿍 사랑이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초대받은 아이들은 사랑이 선물을 들고 사랑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음료수 등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이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선물을 풀어 보면서 사랑이는 좋아했습니다.

재민: 사랑야! 난 예쁘게 글씨 쓰라고 예쁜 연필을 샀어.

사랑: 고마워. 그런데 이 머리핀은 누가 샀니?

한돌: 어, 내가 산 거야.

사랑: **니가** 준 선물 마음에 들어, 한돌야!

한돌: **네가** 기뻐해서 줘서 고마워.

‘네가’를 ‘니가, 너가’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나’나 ‘너’는 뒤

에 ‘는, 를, 도, 만’과 같은 말이 오면 ‘나, 너’이지만, ‘가’가 오면 특이하게 ‘내가, 네가’가 됩니다. 그런데 ‘네가’의 ‘네’를 쉽게 소리 내기 위해 ‘니가, 너가’의 ‘니, 너’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를 ‘니가’나 ‘너가’라고 하는 것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예) 너+가 → 네가(○) / 니가(×) / 너가(×)

너+는 → 너는

너+를 → 너를

너+만 → 너만

나+가 → 내가(○) / 나가(×)

나+는 → 나는

나+를 → 나를

나+만 → 나만

• 담가(○) / 담궈(×)

엄마는 겨울이 되기 전에 김치를 담가야 한다시면서 배추를 많이 사셨습니다.

한들: 엄마! 왜 배추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엄마: 겨울에는 채소가 많지 않으니까, 김치를 미리 **담궈** 놓고 먹으려고 그래. 이런 걸 ‘김장’이라고 한단다.

한들: 엄마, 저도 김치 담그는 것을 도울게요.

“김치를 미리 담궈 놓고”의 ‘담궈’는 ‘담가’로 써야 맞습니다.  
‘담그다’는 ‘담가, 담갔다’로 모습을 달리하며 쓰이는 말입니다.  
‘담그’에 ‘-아, -아야, -았’이 붙으면 ‘그’의 ‘ㄱ’이 없어집니다.

예) 담그다(김치를):담그--+아 → 담가, 담그--+았다 →담갔다  
모으다(돈을): 모으--+아 → 모아, 모으--+았다 → 모았다  
따르다(뒤를): 따르--+아 → 따라, 따르--+았다 → 따랐다  
아프다(배가): 아프--+아 → 아파, 아프--+았다 → 아팠다

그래서 “김치를 담궈 먹었다.”나 “김치를 담궈다.”의 ‘담궈, 담궈다’는 ‘담가, 담갔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 돼라(○) / 되라(×)

오늘은 수업 시간에 자기의 장래 희망을 말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민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지훈이는 컴퓨터 박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한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한돌: 선생님! 저는 ‘전기 박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전기 박사가 뭐하는 사람이니?

한돌: 텔레비전이나 세탁기가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사람요.

선생님: 전기 기술자라고 한단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한돌: 지난번에 텔레비전이 고장 났었는데, 기술자 아저씨

가 와서 잠깐 만지더니 금방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  
했어요.

선생님: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기술자가 **되라**.

“훌륭한 기술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돼라’로 적어야 할지, ‘되  
라’로 적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돼라’로 적어야 맞습  
니다. ‘무엇이 되어라’라고 할 때는 ‘되-’에 ‘-어라’가 붙어 ‘되어  
라’가 되고, 이것이 줄면 ‘돼라’가 됩니다. ‘보아라’가 줄어 ‘봐  
라’로 되거나 ‘주어라’가 줄어 ‘줘라’로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 괴다: 괴--+어라 → 괴어라(괘라)

되다: 되--+어라 → 되어라(돼라)

뵈다: 뵈--+어라 → 뵈어라(뵈라)

쫌다: 쫌--+어라 → 쫌어라(쫌라)

외다: 외--+어라 → 외어라(왜라)

죄다: 죄--+어라 → 죄어라(죄라)

♠ 한글 맞춤법 규정 제35항 참고.

- -든가 -든가(○) / -던가 -던가(×)

한돌이는 고기는 좋아하는데 오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좋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 고기볶음이나 생선만 먹  
습니다.

엄마: 한돌아!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지.

한돌: 김치나 시금치 같은 것은 맛이 없어요.

엄마: 김치를 먹던가 시금치를 먹던가 야채는 꼭 먹어야 몸  
이 튼튼해지는 거야.

한돌: 알았어요.

“김치를 먹던가 시금치를 먹던가”의 ‘먹던가’는 ‘먹든가’로 써야  
맞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쓰는 말은 ‘-든가 -든가’가 맞습  
니다. “그날 그가 왔던가?”처럼 전에 있던 일을 오늘 이야기할  
때는 ‘-던가’를 쓰는 것이 맞지만, 선택을 할 때는 ‘-든가’가 맞  
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선택)’과 ‘밥을 얼마나  
많이 먹던지 놀랐다.(과거의 일을 다시 말함.)’처럼 씁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56항 참고.

• 들러서(○) / 들러서(×)

한돌이네 옆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는  
한돌이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한돌이네 학  
교로 전학을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수민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수민이가 아직 길을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예, 한돌아! 이리 나와 봐라.

옆집 아주머니: 한돌아, 너 학교 끝나고 수민이네 반에 들  
러서 우리 수민이랑 같이 올래. 아직 이 동네 길을  
잘 몰라서.

한돌: 예, 그럴게요.

‘어디에 들려서 오너라’의 ‘들려서’는 ‘들러서’를 잘못 쓴 것입  
니다. ‘들르다’는 ‘들러, 들러서’로 써야 맞습니다. ‘소리가 잘 들  
려서’의 ‘들려서’와 혼동하여 ‘친구 집에 들러서’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 오는 것은 ‘들러서’를 써야  
맞습니다.

들리다(소리): 들리-+-어서 → 들리어서(들려서)

들르다(친구 집): 들르-+-어서 → 들러서

- 떡볶이(○) / 떡복기(x) / 떡뽀끼(x)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웬일인지 재민이가 자기가 한턱내겠  
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용돈을 탔다나요.

한돌: 그래, 뭘 사 줄래?

재민: 먹고 싶은 걸 말해 봐.

수민: 떡볶이 어때?

한돌, 재민: 좋아.

‘떡볶이’를 ‘떡복기’로 쓰거나 ‘떡뽀끼’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떡볶이’나 ‘떡복기, 떡뽀끼’로 적어도 소리는 모두 떡뽀끼이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입니다. ‘떡볶이’는 ‘떡을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 **볶은** 음식’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므로, ‘볶다’와 같게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떡볶이’로 적어야 맞습니다.

- -르걸(○) / -르꼴(×)

엄마가 시장에 가시면서 한돌이와 한글이에게 어질러 놓은 자기 방을 정리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한돌이는 재미있는 만화를 보느라 하지 않았는데, 동생 한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동화책도 바로 꽂아 놓고 인형도 바로 올려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엄마가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방 정리는 했니?

한글: 예, 엄마. 그런데 오빠는 안 했어요.

엄마: 그래. 그럼 정리를 잘 한 우리 한글이만 용돈을 주어야겠구나.

한돌: 저도 지금 할게요. 저도 용돈 주세요.

엄마: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한돌: 나도 빨리 **할걸**.

“나도 빨리 할걸.”의 ‘할걸’을 소리 나는 대로 ‘할꼴’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때의 ‘-르걸’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를 과거로 표현하면 ‘내가 한걸’처럼 됩니다. ‘할걸’과 ‘한걸’은 나타내는 시간만 다르고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걸’에서만 ‘-르’ 받침 때문에 뒤의 ‘-걸’이 꺾 로 소리 납니다. 소리는 그렇게 나더라도 ‘한걸’과 ‘할걸’의 ‘걸’은 같은 말이므로 같게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할지’와 ‘할게’ 등이 있습니다. 물음을 나타내는 ‘할까, 할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발음은 꺾 로 나더라도 ‘ㄱ’로 적어야 합니다.

예) 밥 먹을걸(○) / 밥 먹을꺾(×)  
 사랑할 거야(○) / 사랑할 꺾야(×)  
 너 줄게(○) / 너 줄꺾(×)  
 누가 할지(○) / 누가 할꺾(×)

누가 할까(○) / 누가 할가(×)  
 어찌할꼬(○) / 어찌할고(×)

♠ 한글 맞춤법 규정 제53항 참고.

• 만듭(○) / 만듭(×)

한돌이는 아빠가 사 주신 조립식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돌이는 몇 시간 동안 로봇을 열심히 조립하여 드디어 완성하였습니다.

엄마: 한돌아! 이제 그만하고, 일기 써야지.

한돌: 예, 쓸게요. 오늘은 일기를 쓸 내용이 있어요.

엄마: 그래.

한돌이는 일기장을 펴서 제목에 “드디어 로봇을 **만듬.**”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로봇을 만드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썼습니다.

“로봇을 만들.”의 ‘만듬’은 ‘**만듬**’으로 써야 맞습니다. ‘가다’가 ‘감(가+-ㅁ)’이 되는 것처럼 ‘만들다’도 ‘만들’에 ‘-ㅁ’이 붙으면 ‘**만듬**’이 됩니다. ‘만듬이, 만듬으로’가 만들미, 만들므로로 소리 나는 것으로 보면 받침이 ‘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살다: 살+-ㅁ → **삶** : 집에서 혼자 **삶**.

알다: 알+-ㅁ → **앎** : 그 지역을 잘 **앎**.

얼다: 얼+-ㅁ → **엷** : 얼음이 **엷**.

갈다: 갈+-ㅁ → **값** : 멧돌로 콩을 **값**.

♠ 한글 맞춤법 규정 제19항, 제57항 참고.

- (정답을) 맞히다(○) / (정답을) 맞추다(×)

일요일 저녁 한돌이네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사람이 답을 아주 잘 맞혔습니다.

한돌: 아빠! 저 형은 어떻게 저렇게 정답을 잘 **맞춰요**.

아빠: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 알고 있는  
게 많은 모양이야.

엄마: 우리 한돌이도 저 형처럼 답을 잘 **맞히고** 싶니?

한돌: 예.

“정답을 맞춰요.”의 ‘맞춰요(맞추어요)’는 ‘맞혀요(맞히어요)’로  
써야 맞습니다. 물음에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은 ‘맞히다’이고, 답  
을 답안지와 비교하여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맞  
추다’입니다. ‘정답을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옳은 답을 말하는  
것이므로 ‘맞히다’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시험지를 답안지  
와 맞춰 보다”라고 할 때는 두 개를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므로 ‘맞  
추다’를 써야 합니다. ‘알아맞히다’의 경우는 답을 알아서 맞는  
답을 말하는 것이므로 ‘맞히다’를 쓴 ‘알아맞히다’가 맞습니다.

예) 맞추다: 정답과 시험지를 맞추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서로 답을 맞추어 본다.

맞히다: 문제를 맞히다, 수수께끼를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알아맞히다: 퀴즈를 알아맞히다,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  
를 알아맞혀 봐.

• 며칠(○) / 몇 일(×)

한돌이네 반 친구 찬규가 며칠째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찬규네 집을 아니?

한돌: 제가 아는데요.

선생님: **몇 일** 동안 찬규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가 보려고 한단다. 한돌이가 선생님과 같이 가 줄래.

한돌: 예.

‘며칠’만이 맞춤법에 맞는 말이고 ‘몇 일’은 잘못된 말입니다. ‘몇 월 몇 일’이라고 할 때는 ‘몇 일’로 써야 할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월’처럼 ‘몇 일’의 ‘몇’을 밝혀 적으려면 ‘몇 월’을 며월 (<- 면 월)로 발음하는 것처럼 며달 (<- 면 일)로 ‘몇’과 ‘일’을 독립적으로 발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은 며칠로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말입니다. 즉 ‘며칠’은 ‘몇 일’로 ‘몇’과 ‘일’의 형태를 밝혀 적을 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 적어야 합니다.

♠ 한글 맞춤법 규정 제27항 참고.

• 바람(○) / 바램(×)

오늘은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한돌이는 시험을

잘 못 보았는지 올상이었습니다.

재민: 한돌아! 시험 잘 못 보았어?

한돌: 응, 이번에 100점 맞는 것이 내 **바램이었는데**.

재민: 다음에 잘 보면 돼지 뭐.

한돌: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키펀드 사준다고 했는데.

“내 바램이었는데.”라고 했을 때 ‘바램이다’는 ‘바람이다’로 써야 맞습니다. 자주 ‘나의 바램이야, 나는 바랬다, 네가 빨리 오길 바래’로 씁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바라다’라는 동사가 변하여 만들어진 말인데, ‘바라다’의 ‘바라-’에 ‘-ㅁ’이나 ‘-았-’, ‘-아’가 붙으면 ‘바람(바라-+ㅁ), 바랐다(바라-+았-+다), 바라(바라-+아)’로 써야 맞습니다. ‘키가 자라다’의 ‘자라다’를 ‘자람, 자랬다, 자래’로 쓰지 않고, ‘자람, 자랐다, 자라’로 씁니다. 이것은 ‘바라다’를 ‘바램, 바랬다, 바래’로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               |
|----|---------------|---------------|
| 예) | 바라다           | 자라다           |
|    | 바라-+-ㅁ → 바람   | 자라-+-ㅁ → 자람   |
|    | 바라-+-아 → 바래   | 자라-+-아 → 자라   |
|    | 바라-+-았다 → 바랐다 | 자라-+-았다 → 자랐다 |

♠ 표준어 규정 제11항 참고.

• 반드시 / 반듯이

한돌이는 위인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참 읽었더니 조금 지루해졌습니다. 남은 부분을 마저 읽고 싶기도 하고 지루해서 그만 읽고 싶기도 해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옆으로 누여 읽었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오시던 엄마가 이 모습을 보시고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엄마: 한돌아! 책은 책상에 **반듯이** 앉아 보아야 한다.

한돌: 왜요, 누워서 보면 편한데.

엄마: 자세가 안 좋으면 시력도 나빠지고, 허리에 있는 뼈도 휘어진단다.

한돌: 그럼,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반듯하게 앉아야겠군요.

‘반드시’와 ‘반듯이’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내일 반드시 오너라.”처럼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일 때는 ‘반드시’가 맞고,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아라.”처럼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일 때는 ‘반듯이’가 맞습니다. ‘반듯하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반듯이’로 써야 합니다.

예) 내일 반드시(×반듯하게) 오너라. / 숙제는 반드시(×반듯하게) 7시까지 해 놓아라.

책상에 반듯이(반듯하게) 앉아라. / 책꽂이에 책을 반듯이(반듯하게) 꽂아라.

♠ 한글 맞춤법 제57항 참고.

• 붙이다(○) / 부치다(×)

한돌이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방학을 하면 아빠, 엄마와 한글이와 가고 싶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시골 할머니댁은 서울보다 더 추운데 걱정입니다.

엄마: 한돌아, 누구한테 편지 썼니?

한돌: 할머니, 할아버지께 썼어요. 이제 편지는 다 쓰고 우표만 **부치면** 돼요..

엄마: 여기 우표 있다. 우표 **붙여서** 편지통에 얼른 부치고 오너라.

‘우표만 부치면’의 ‘부치면’은 ‘붙이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종이가 벽에 잘 붙다, 껌이 벽에 붙다’의 ‘붙다’에 ‘-이-’가 더 들어간 말이므로 ‘붙이다’로 써야 맞습니다. 즉 풀이나 테이프 등을 이용해 두 물체를 고정시키는 것은 ‘붙이다’입니다. 이와 달리 ‘편지를 친구에게 부치다’처럼 ‘붙다’와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으나 원래 뜻에서 떨어진 경우는 ‘부치다’를 씁니다. ‘우표를 편지에 붙인다’고 할 때는 ‘붙이다’를 쓰는 것이 맞지만, 할아버지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일 때는 ‘부치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붙이다’와 ‘부치

다'의 발음이 같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풀로 붙이는 것은 '붙이다', 편지를 보내는 것은 '부치다'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치다: 힘이 부치다, 편지를 부치다, 논밭을 부치다, 빈대떡을 부치다

붙이다: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조건을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 한글 맞춤법 제57항 참고.

### • 숟가락 / 젓가락

한돌이네 식구들이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이고, 한돌이가 좋아하는 멸치도 볶으셨습니다.

한돌: 어, 오늘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 있네.

아빠: 한돌이는 골고루 먹어라.

한돌: 예.

엄마: 한돌이 젓가락 제대로 잡고 먹어라.

한돌: 숟가락은 괜찮은데 젓가락은 쓰기가 어려워요.

'젓가락'은 받침에 'ㅅ'을 쓰고, '숟가락'은 받침에 'ㄷ'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두 말 모두 '가락'이 들어가는 말인데, 왜 하나는

‘ㅅ’를 쓰고 다른 하나는 ‘ㄷ’를 쓰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젓가락’은 젓가락을 의미하는 ‘저’와 ‘가락’이 붙은 말로 이때는 두 말을 연결하는 ‘ㅅ’을 넣은 것입니다. ‘찾잔, 등꽃길’에 쓰인 ‘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숟가락’은 ‘밥 한 술’의 ‘술’이라는 말과 ‘가락’이 붙은 것으로 이때 ‘술’은 ‘가락’을 만나면서 받침 ‘ㄹ’이 ‘ㄷ’으로 변합니다. 받침으로 ‘ㄷ’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처럼 ‘ㅅ’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루어진 말이면 ‘젓가락’은 ‘ㅅ’을 받침으로 쓰고, ‘숟가락’은 ‘ㄷ’을 쓰는 것입니다. ‘숟가락’처럼 ‘ㄹ’ 받침이 ‘ㄷ’으로 변한 경우는 ‘이튿날’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이틀’에 ‘날’이 붙으면서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어 ‘이튿날’이 됩니다.

• 안 먹어(○) / 앓 먹어(×)

한돌이는 엄마께서 주신 용돈으로 과자를 샀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를 샀는데, 한글이 먹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글: 오빠! 나 좀 줘.

한돌: 한 개만 먹어.

한글: 아유, 겨우 한 개만 먹으라고. 치사해서 **앓** 먹어.

‘앓 먹어’의 ‘앓’은 ‘안’으로 써야 맞습니다. ‘안’은 ‘아니’의 준말로 ‘안 먹다, 안 입다, 안 가다’처럼 쓰는 말입니다. ‘앓’은 ‘보지 앓고, 가지 앓았다, 먹지 앓겠다’처럼 ‘앓’ 혼자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안 먹는다’는 ‘안’을 쓰고, ‘먹지 않는다’는 ‘않-’을 써야 맞습니다.

- 어서 오십시오(○) / 어서 오십시오(×)

아빠가 갈비를 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돌이네 가족은 모처럼 외식을 하러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 음식점 문에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한돌: 아빠! ‘어서 오십시오’가 맞나요, ‘어서 오십시오’가 맞나요?

아빠: 글썸?

엄마: ‘어서 오십시오’가 맞는 표현이야.

“어서 오십시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어서 와요”처럼 ‘어서 와’만으로도 말이 되는 경우는 ‘요’를 쓰는 것이 맞지만, “어서 오십시오.”처럼 “어서 오십시-”만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오’를 써야 합니다.

사과를 먹어(○) : 사과를 먹어요(○) / 사과를 먹어오(×)

손을 잡아(○) : 손을 잡아요(○) / 손을 잡아오(×)

어서 가십시-(×) : 어서 가십시오(○) / 어서 가십시요(×)

많이 드십시-(×) : 많이 드십시오(○) / 많이 드십시요(×)

• 오뚝이(○) / 오뚜기(×)

돌이 막 지난 사촌 동생 영민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직 걷는 게 서툴러 뒹뒹 걸다가 앞으로 꼭 넘어지곤 합니다.

한돌: 엄마, 영민이 참 귀여워요.

엄마: 그래, 걷는 것도 귀엽고, 웃는 것도 참 귀엽지.

한돌: 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게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는 ‘**오뚝이**’로 써야 맞습니다. 누워 있는 것이 솟거나 발짝 일어나는 모양을 이르는 말은 ‘오뚝, 오뚝하다’입니다. “코가 오뚝하다, 무슨 생각이 나는지 오뚝 일어서서 나갔다.”처럼 씁니다. 그러므로 누워 있던 것이 발짝 일어나는 인형 ‘오뚝이’도 ‘오뚝, 오뚝하다’와 같은 모양으로 적어야 합니다.

• 원지(○) / 윈지(×)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날씨도 꽤 쌀쌀합니다. 한돌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조금 배가 고픈 듯하였습니다.

한돌: 엄마! 오늘은 **원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엄마: 그래, 날씨도 쌀쌀하니 떡볶이에 어묵국을 끓여 줄까?

한글: 예, 와 맛있겠다. 오빠 덕분에 맛있는 거 먹겠네.

“오늘은 웬지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의 ‘웬지’는 ‘**웬지**’로 써야 맞습니다. ‘왜 그런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왜’라는 모습이 살아 있는 ‘웬지’로 씁니다. ‘웬 걱정이야, 웬일, 웬 사람’처럼 ‘어찌된, 어떠한’이라는 의미일 때는 ‘웬’을 쓰지만, ‘왜 그런지’의 ‘웬지’는 ‘**웬**’을 써야 맞습니다.

웬-: 웬지 좋다

웬: 웬일이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 웬 걱정을 그렇게 하니.

- 있음(○) / 있음(×)  
~ 있습니다(○) / 있습니다(×)

엄마와 한돌이는 동네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 슈퍼마켓 문에는 ‘담배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돌: 엄마! 슈퍼에서 담배도 파나 봐요.

엄마: 그런가 보다. 그런데 ‘담배 있음’은 틀린 말인데.

한돌: 그럼 뭐라고 써야 맞아요.

엄마: ‘담배 **있음**’이라고 해야 돼.

‘있음’과 ‘있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사과 있음.”은 ‘있다’의 ‘있’에 ‘-음’을 붙인 것이고, “사과가 있습니다.”에서는 ‘있’에 ‘-습니다’를 붙인 것입니다. ‘있음’에서 ‘있’의 받침인 ‘ㅈ’의 소리가 뒤에 연결되면서 일쌈 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있음’으로

적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다’를 ‘먹음’, ‘먹습니  
다’로 쓰는 것처럼 ‘있다’도 ‘있음, 있습니다’로 써야 맞습니다.

종결형(-습니다)

먹다      먹습니다

있다      있습니다

했다      했습니다

명사형(-음)

먹음: 아이는 밥을 잘 먹음.

있음: 지갑에 돈이 있음.

했음: 오늘 숙제는 다 했음.

♠ 표준어 규정 제17항 참고.

## 2. 띄어쓰기

앞 장에서는 바르게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장에서는 바른 띄어쓰기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 넘어질 거야(○) / 넘어질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거야.”의 ‘거야’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거야’의 ‘거’는 ‘먹는 것, 입는 것’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을 ‘먹는 거, 입는 거’처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의 ‘것’은 ‘먹는 사과, 입는 옷’의 ‘사과, 옷’과 같은 자리에 있는 말로, ‘사과, 옷’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먹는 사과’처럼 ‘먹는 것’도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것’과 같은 ‘거’도 ‘먹는 거, 입는 거’나 ‘사랑을 할 거야’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 먹는 데 소금을 쳐라(○) / 먹는데 소금을 쳐라(×)

“우리가 밥을 먹는데 누가 찾아왔다.”의 ‘먹는데’와, “우리가 먹는 데 소금을 쳐라.”의 ‘먹는 데’는 다른 말입니다. 앞 문장의 ‘-는’은 ‘데’와 붙여 써야 하고, 뒤 문장의 ‘데’는 띄어 써야 합니

다. 뒤에 ‘-에’를 붙여서 말이 되면 앞말과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붙여 쓰면 됩니다.

예) 나는 가는데, 너는 안 갈래. / 날이 추운데 어딜 가니?  
집에 오는 데(에) 3시간 걸렸어  
공부를 잘하는 데(에)다가 마음씨도 착해.

- 너밖에 없다(○) / 너 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의 ‘밖에’는 붙여 써야 합니다. ‘오직 너뿐’이라는 의미일 때는 ‘밖에’가 ‘너를, 너뿐, 너만, 너도’의 ‘를, 뿐, 만, 도’와 같은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씁니다. 이때는 항상 ‘없다, 앓다, 모르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 누가 왔다.”처럼 ‘안에’와 상대되는 ‘밖에’일 때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첫 번째(○) / 첫번째(×)

‘첫 번째’로 띄어 써야 합니다. ‘두 사람, 세 친구’의 ‘두, 세’처럼 ‘첫’도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등은 ‘첫, 두, 세, 네, 다섯’과 ‘번째’를 띄어 써야 합니다.

- 스물여섯(○) / 스물 여섯(×)

‘스물여섯’은 붙여 써야 합니다.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까지는 붙여 쓰고 만이 넘을 경우에 띄어 씁니다.

12억 3456만 7898: 십이억∨삼천오백육십만∨칠천팔백구십팔

5만 6321: 오만∨육천삼백이십일

4214: 사천이백십사

367: 삼백육십칠

♠ 한글 맞춤법 제44항 참고.

- 이럴 수가(○) / 이럴수가(×)

“아니! 이럴 수가?”의 ‘이럴 수가’는 띄어 써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럴 이유는 없다’처럼 ‘이럴’은 뒤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학생입니다(○) / 학생 입니다(×)

“저는 방화 초등학교 학생입니다.”의 ‘학생입니다’는 붙여 써야 합니다. ‘학생입니다’의 ‘입니다’는 ‘학생’이라는 말에 붙여 서술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학생’을 빼고 ‘입니다’만 사용할 수 없는 말이므로, 항상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예) 책상입니다 / 내 친구이어서 봐주었다. / 편지를 쓰는 것은  
보고 싶어서입니다.

• 쟁반같이(○) / 쟁반 같이(×)

‘쟁반같이’의 ‘같이’는 ‘쟁반처럼’의 ‘처럼’처럼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는 천재 같다’에서 쓰인 ‘같다’  
에서 온 말이지만 그 의미가 멀어져 지금은 ‘처럼’처럼 앞말과  
붙여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철수 같은 사람’  
의 ‘같은’이나 ‘그와 같이 가다’처럼 ‘-와 같이’의 ‘같은, 같이’는  
앞말과 붙여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쟁반같이 둥근 달, 쟁반 같은 달, 쟁반과 같이 둥근 달

• 한 권(○) / 한권(×)

‘책 한 권’의 ‘권’은 책을 세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물건을  
셀 때 쓰는 단위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숫자 1, 2, 3 등이 올 경우는 붙여 쓰는 관례가 있어,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예) 개: 사과 한 개 / 권: 책 한 권, 사전 두 권 / 대: 자동  
차 세 대, 버스 열 대  
개: 사과 1개 / 권: 책 1권, 사전 2권 / 대: 자동차 3대

- 홍길동 씨(○) / 홍길동씨(×)

“홍길동 씨, 나오세요.”의 ‘홍길동 씨’는 ‘홍길동’과 ‘씨’를 띄어 써야 합니다. ‘씨’는 성이나 이름을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성이나 이름과 띄어 써야 합니다. 부르는 말로 쓰는 ‘홍 씨, 길동 씨, 홍길동 씨’도 띄어 써야 합니다. ‘씨’와 비슷한 ‘군, 양, 님’도 ‘홍길동 군, 홍길순 양, 홍길동 님’으로 띄어 씁니다.

### 3. 구별해 써야 할 말

이 장에서는 자주 혼동해 쓰는 두 말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말은 뜻이 다르므로 구별해 써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 꼬리 / 꼬지

“새는 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새는 ‘꼬리’는 없고 ‘꼬지’가 있습니다. ‘꼬지’는 주로 새의 몸 뒤에 뼈죽 내민 깃을 가리키고, ‘꼬리’는 네발짐승의 엉덩이 끝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을 가리킵니다.

예) 소의 꼬리 / 강아지 꼬리  
참새 꼬지

- 넓이 / 너비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한 크기를 가리키고, ‘너비’는 길이가 있는 물건의 폭을 가리킵니다.

예) 방의 넓이 / 천의 너비는 대체로 일정하다.

• 봉오리 / 봉우리

비슷한 말이지만 구별해서 써야 할 말 중에 ‘봉오리’와 ‘봉우리’가 있습니다. ‘봉오리’는 꽃이 피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고, ‘봉우리’는 산에서 뾰족하게 솟은 부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꽃봉오리’로 쓰고, ‘산봉우리’로 써야 맞습니다.

봉오리: 꽃봉오리

봉우리: 꽃봉우리

• 늘이다 / 늘리다

“고무줄을 늘리지 마라.”의 ‘늘리지’는 ‘늘이지’로 써야 맞습니다. ‘늘리다’는 넓이나 능력 따위를 크게 하거나 많이 한다는 뜻이고, ‘늘이다’는 길이를 늘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길이는 똑같은데 잠시 늘어나게 하는 것은 ‘늘이다’를 써야 합니다.

늘이다: 원래 길이는 그대로 있고, 잠시 늘어나다.

늘리다: 덧대어 원래 길이가 늘어남.

예) 고무줄을 늘이다, 옛가락을 늘이다  
마당을 늘리다, 실력을 늘리다

- 다리다 / 달이다

“엄마는 아빠 바지를 달이신다.”의 ‘달이신다’는 ‘다리신다’로 써야 맞습니다. ‘다리다’는 다리미로 옷의 구김을 펴는 것이고, ‘달이다’는 한약이나 간장을 끓여 진하게 하는 것이다.

예) 바지를 다리다, 와이셔츠를 다리다  
간장을 달이다, 한약을 달이다

- 달라요 / 틀려요

“그 애는 나와 틀려요.”의 ‘틀려요’는 ‘달라요’로 써야 맞습니다. ‘틀려요’는 ‘내 답은 틀려요’처럼 맞지 않는다는 말이고, ‘달라요’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할 때 쓰는 말로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틀려요, 우리는 성격이 틀려요.”처럼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 ‘틀리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르다(↔같다): 아들이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 칠월이 되자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더워진다.

틀리다(↔맞다): 답이 틀리다, 계산이 틀리다

- 생태 / 동태 / 북어 / 황태 / 노가리

우리가 먹는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노가리’는 모두 ‘명태’라는 생선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얼리지도 말리지 않은 것을 ‘생태’라고 합니다. 명태를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입니다. 얼려서 말린 누르스름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황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발명 / 발견

“난 숙제해 주는 로봇을 발견했어.”의 ‘발견’은 ‘발명’으로 써야 맞습니다. ‘발견’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미처 찾지 못한 사물, 진리 등을 알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발명’은 이 세상에는 없는, 쓸모 있는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발견’이고,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발명’입니다.

예) 아메리카 대륙 발견 /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사람을 대신할 로봇 발명 / 에디슨은 축음기, 전등, 영사기 등을 발명하였다.

- 벌이다 / 벌리다

“다리를 더 벌여 봐.”의 ‘벌여’는 ‘벌려’로 써야 맞습니다. ‘벌여’는 ‘벌이다’에 ‘-어’가 붙은 것이고, ‘벌려’는 ‘벌리다’에 ‘-어’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벌리다’는 물건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벌이다’는 물건들을 늘어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여 진행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벌이는 것이 아니고 벌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리를 벌리다, 젓가락을 벌리다  
잔치를 벌이다, 소동을 벌이다

- 썩이다 / 썩히다

“부모님 속 좀 작작 썩혀라.”의 ‘썩혀라’는 ‘썩여라’로 써야 합니다. 걱정이나 근심으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썩이다’를 씁니다. ‘썩히다’는 음식물 등의 물질을 부패시키거나, 물건이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에 쓰는 말입니다..

예) 속을 썩이다, 가슴을 썩이다  
쓰레기를 썩히다, 능력을 썩히지 마라.

- 알갱이 / 알맹이

‘알갱이’는 곡식, 모래 따위와 같이 작고 동글동글하며 단단한 물질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맹이’는 껍질이나 껍데기에 싸여 있는 작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알갱이’는 작고 동글동글한 물질이면 곡식이건 모래건 무엇에든 쓸 수 있지만, ‘알맹이’는 껍질이 있는 것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 보리 알맹이(○), 보리 알갱이(○)  
모래 알갱이(○), 모래 알맹이(×)

- 윗옷 / 옷옷

“날씨가 추우니 겉에 윗옷을 입어라.”에서 ‘윗옷’은 ‘옷옷’이라고 해야 합니다. ‘윗옷’과 ‘옷옷’은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바지나 치마와 짝을 이루어 위에 입는 옷은 ‘윗옷’입니다. 남방이나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입는 외투나 점퍼 따위는 ‘옷옷’입니다. ‘아래옷’과 짝이 되는 것은 ‘윗옷’이고, ‘속옷’과 짝이 되는 것은 ‘옷옷’입니다.

예) 바지는 아래옷, 셔츠는 윗옷  
내복은 속옷, 점퍼는 옷옷

- 입 / 부리 / 주둥이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입니다. 새들은 이런 기관이 빨처럼 딱딱하고 길고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때는 ‘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참새나 독수리는 ‘입’이 아니라 ‘부리’로 먹이를 먹는다고 해야 합니다. ‘주둥이’는 사람이나 동물, 새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사람에게 쓰면 점잖지 않은 표현이라 듣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 작다 / 적다

“나는 용돈이 작다.”의 ‘작다’는 ‘적다’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작다’는 크기가 보통에 못 미치는 이하인 것을 가리키고, ‘적다’는 수나 양이 보통에 못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작다’의 반대말은 ‘크다’이고, ‘적다’의 반대말은 ‘많다’인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 키가 작다↔키가 크다, 발이 작다↔발이 크다, 옷이 작다  
↔옷이 크다  
양이 적다↔양이 많다, 관심이 적다↔관심이 많다, 피해가 적다↔피해가 많다, 수입(용돈)이 적다↔수입(용돈)이 많다

## 4. 외래어 표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적을 때는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은 이 표기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잘못 쓰고 있는 외래어를 살펴보겠습니다.

- 디지털(○) / 디지탈(x)

‘디지털 세상’의 ‘**디지털(digital)**’을 ‘디지탈’로 쓰기도 하는데 잘못입니다. ‘디지털’로 적어야 맞습니다.

- 로봇(○) / 로보트(x)

“아빠! 새로 나온 **로봇(robot)** 사 주세요.”의 ‘로봇’을 ‘로보트’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로봇,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말은 외국에서 온 말입니다. 외국에서 온 말을 우리 글자로 적는 방법을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로봇(robot)’의 ‘**봇**’처럼 그 나라 말에서 짧게 소리 나는 것은 마지막 자음을 받침으로 적어야 합니다. ‘컵(cup), 바스켓(basket)’의 ‘p, t’가 이에 속하는 말입니다.

- 센터(○) / 센타(×)

“엄마는 문화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신다.”의 ‘센터(center)’를 ‘센타’라고도 하는데, ‘센타’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센티미터(○) / 센치미터(×)

“철수의 키는 약 140센티미터이다.”의 ‘센티미터(centimeter)’를 ‘센치미터’라고도 하는데, ‘센치미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슈퍼(○) / 수퍼(×)  
~ 슈퍼마켓(○) / 슈퍼마켓(×)

“슈퍼에 가서 비누 좀 사 와라.”의 ‘슈퍼(super)’를 ‘수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슈퍼’로 써야 맞습니다. ‘슈퍼’는 ‘슈퍼마켓’을 줄여 쓰는 말입니다. ‘슈퍼마켓’은 ‘슈퍼맨(superman), 슈퍼스타(superstar), 슈퍼컴퓨터(supercomputer)’ 등처럼 ‘슈퍼’로 써야 맞습니다.

- 주스(○) / 쥬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다.”의 ‘주스(juice)’가 맞고, ‘쥬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 초콜릿(○) / 초콜렛(×)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의 ‘초콜릿(chocolate)’은 많은 사람들이 ‘초콜렛’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발음에 따라 ‘초콜릿’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 케이크(○) / 케익(×)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아라.”의 ‘케이크(cake)’를 ‘케익’이라고도 하는데 ‘케익’은 잘못된 말입니다. ‘케이크’로 써야 맞습니다.

- 텔레비전(○) / 텔레비전(×)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의 ‘전’은 ‘전’으로 써야 합니다. ‘전 / 전’, ‘천 / 천’처럼 ‘ㄱ’로 쓰거나 ‘ㅋ’로 써도 발음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 천’으로 쓰지 않고, ‘전’과 ‘천’으로 씁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television)’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파이팅(○) / 화이팅(×)

“우리 팀, 파이팅(fighting)!”의 ‘파이팅’을 ‘화이팅’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어에서 f 로 소리 나는 것은 ‘ㅍ’으로 적어

야 합니다. ‘파일(file), 필름(film), 필터(filter)’ 등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프라이팬(○) / 후라이팬(×)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 후라이를 했다.”의 ‘후라이팬’과 ‘계란 후라이’는 ‘**프라이팬(frypan)**, **계란 프라이(fry)**’라고 써야 맞습니다. 원어가 ‘frypan, fry’로 f 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f 는 ‘ㅍ’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 5. 방송언어의 이해

- 방송언어(Broadcast Language)의 정의
    - 방송을 통해 표출되는 모든 말
    - 음성언어 (Spoken Language), 문자언어(Letter Language)
    - 일반인이 아닌 방송인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로 문어적인 특징보다는 구어적인 특성을 갖는다.
  - 방송언어의 특성과 영향력
    - 방송언어의 특성
      - 일방성 :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
      - 광역성 : 널리,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전달
      - 동시성 : 동시에 전달
      - 모방성 : 교육효과를 고려해야 함
      - 규범성 : 표준 어법으로 정확해야 함
    - 방송언어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
- \*개인별 TV 시청시간은 2시간 44분으로 남성은 2시간 17분 여성은 3시간 9분으로 나타났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 조사, 2006년)

- 방송언어의 조건 (기존의 논의)

- 이희승(1956) : 표준어 사용, 세련된 구두어, 순화된 말
- 이응백(1979) : 표준어 사용, 품위, 분명함, 자연스러움
- 박갑수(1996) : 표준어 사용, 구두어, 쉬운 말, 순화된 말
- 이주행(2005) : 순정성, 공식성, 공손성, 공정성, 세련성, 용이성

- 방송언어의 조건(SBS)

- 표준성 : 방송은 국민들의 언어생활의 표준이자 교과서이다. 또한 방송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즉 ‘표준어’를 정확하고 어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격식성 : 방송은 공적 매체이므로 방송언어는 일상 언어와는 다른 격식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 언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석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다. 또 1차적인 높임 대상이 시청자이므로 시청자 중심의 경어가 되어야 한다.
- 구어성 : 방송언어는 입말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운이나 음절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간투사의 잦은 사용이나 과도한 준말의 사용은 피해야 하고 지나친 구어의 사용도 곤란하다.

- 다양성 : 언어 사용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 상투적인 표현이나 같은 어휘의 반복을 피하고 다양한 표현과 문장을 사용해야 한다.
- 순화성 : 인터넷 언어, 비어, 신조어, 은어, 외래어 등을 피하고 순화된 말을 사용해야 한다.
- 용이성 : 방송언어는 모두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어려운 말이라면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 변화성 : 방송이 일반 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듯 방송언어도 언중의 언어생활을 반영해야 한다.

#### • 방송과 금기어

- 방송심의규정 제52조 (방송언어)
  -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 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송심의규정 제53조 (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25>

## 6. 방송화법

-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 의사 전달,  
의사소통

-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personal communication)
- 집단 커뮤니케이션 (mass communication)
- 수요자 커뮤니케이션 (custom communication)

- 화법(話法; Speech)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나 신체 동작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 화법의 목적

화법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또는 상대방에게 감명을 주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 친분을 쌓거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해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 화법의 중요성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 말은 곧 신분과 출신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탈권위주의 사회에 이르러 화법은 개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말이 곧 경쟁력이라 할 만큼 화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화법의 종류

- 상황에 따른 분류 : 발표, 진행, 참여, 대화
- 목적에 따른 분류 : 설득적 스피치, 정보제공 스피치  
유홍 스피치, 격려 스피치

- 좋은 스피치의 조건

- 스피치는 진실해야 한다.
- 스피치는 명쾌해야 한다.
- 스피치는 간결해야 한다.
- 스피치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 스피치는 적절해야 한다.

- 좋은 연사의 조건 (AKISS)

좋은 연사의 조건으로는 태도(Attitudes), 지식(Knowledge), 인격

(Integrity), 기술(Skills), 자신감(Self-confidence)을 들 수 있다.

- 스피치 불안증을 막기 위한 요소

- 불안증이 증폭되는 것을 막아라.
-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 자신의 불안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 불안감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라.
- 성공적으로 발표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 스피치의 준비 과정

수용자 분석 ⇔ 연설 주제의 선정 ⇔ 목표 설정 ⇔ 핵심 내용의 개발 ⇔ 보조 자료의 수집 ⇔ 연설 내용의 구성

- 목소리

빠르기(rate), 크기(volume), 높이(pitch), 길이(duration), 쉬기(phrasing), 힘주기(emphasis)가 모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좋은 목소리라 할 수 있다.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는 몸짓(Gesture), 의상(Costume), 얼굴과 눈(Face and eyes), 자세(Posture) 등이 있다.

- 화법의 실제 - 자기소개 1분 화법

- 발표 전 준비

- 자기 분석 ➡ 청중 파악 ➡ 발표 불안증 극복 ➡ 핵심 명제 개발 ➡ 아이디어 개발 ➡ 개요서 작성

- 3분 스피치의 개요서 작성

- 주제
- 서론 : 목적, 핵심 명제
- 본론 : 주요 아이디어 1, 2, 개선점 및 해결책
- 결론 : 본론 핵심 명제 요약, 최종 결어 한 마디

- 좋은 자기소개 화법

- 예절을 지킨다.
- 바른 자세로, 밝고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
- 상대방을 관찰하며 적당한 속도로 부드럽게 말한다.
- 시선은 청중을 바라보되 한 방향만 보지 말고 여러 방향을 적절하게 시간 배분하여 바라본다.
- 몸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그러나 너무 부산해서 청중의 시선이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손의 움직임이 너무 잦으면 좋지 않다.

- 연단에 몸을 기대거나 교탁에 팔을 얹는 행위, 뒷짐을 지거나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자세 등은 좋지 않다.